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미조직지역 주민의 사회복지협의회 참여 의향에 미치는 경험 및 인식요인의 영향구조 분석

감 정 기(경남대학교), 김 민 주(창신대학교)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조직은 우리나라의 현안 주요 과제의 하나이다. 아울러, 사회복지협의회가 종래의 '기관'협의회의 성격을 벗어나 '지역사회'협의회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230여 시군구 가운데 사회복지협의회 조직을 완료한 곳은 절반에 불과하며, 운영형태는 '기관'협의회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 주민의 주체적 참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무엇이겠는가를 밝힘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실천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주민의 참여의향을 결정하는 영향요인간 관계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학문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협의회가 결성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 주민의 사회복지협의회 참여의향을 파악하면서,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 및 의식 관련 요인들 사이의 관계구조를 밝혀봄으로써, 이론적 및 실천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2. 지역사회참여의 의미와 영향요인

### 1) 지역사회참여의 의미

일반적으로 참여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영역의 결정에 효과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며, 동시에 어떤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입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주민의 참여는 지역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행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참여를 의미한다

는 점에서 ‘지역사회참여’라 칭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지역사회참여’는 ‘주민참여’와 상호대체가 가능한 용어로 이해한다. 이런 지역사회참여는 지역사회의 조직화, 역량강화, 지역사회구축 등에 주요한 조건이 된다.

## 2) 지역사회참여 영향요인

선행연구들의 다양한 연구결과들과 개념간의 이론적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대,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사회참여 영향요인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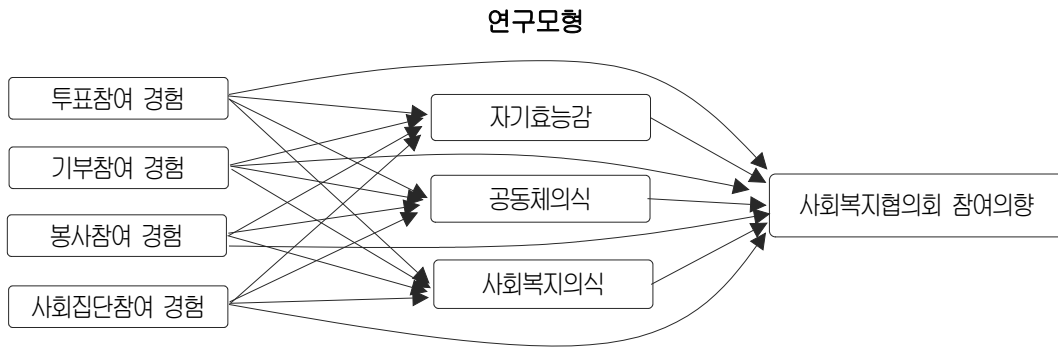
영향요인	하위 구성요소
사회참여 경험요인	기부와 봉사 등의 이타적 활동 경험, 중간집단 등의 사회집단 참여 경험, 투표 등의 정치적 참여 경험 등
사회의식 요인	공동체의식 등의 소속의식, 사회복지의식 등의 시민의식, 자기효능감 등의 자기정체 의식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 주관적 생활수준, 거주기간, 주민 가치관 등

## 3. 연구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은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 가운데 3개(시, 군, 자치구 각 1개)를 유의표집하여, 표본지역 주민들 가운데 만 20세 이상 성인을 집락, 할당, 편의 표집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추출한 표본 402명에 대한 조사결과 최종적으로 380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거쳐 경험요인을 독립변수, 의식요인을 매개변수, 참여의향을 종속변수로 하는 인과모형을 구성하여,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부가적 정보를 얻기 위해 변인간 상관관계나 집단간 평균치 비교 분석을 보조적으로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SPSS와 Amos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인 경험요인으로는 투표참여, 봉사참여, 기부참여, 사회집단참여 등을 사용하였고, 매개변수인 의식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 공동체의식, 사회복지의식 등을 사용하였다. 원용한 척도들의 신뢰도계수는 모두 .8 이상으로 신뢰할 만하다.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과 같다.



#### 4.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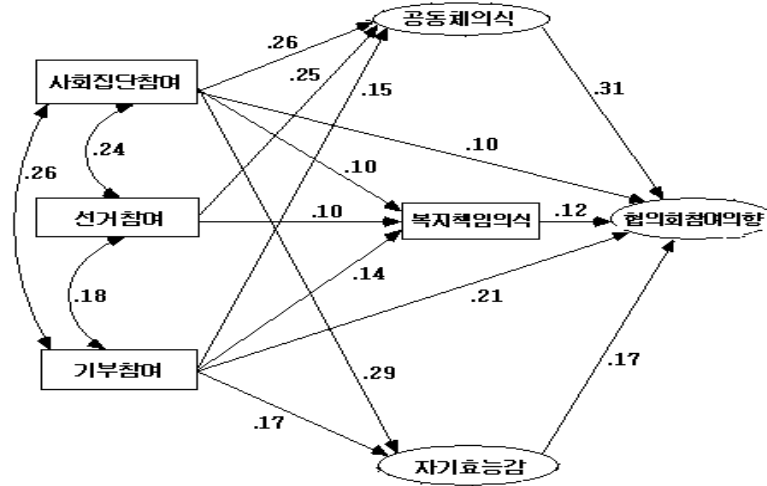
첫째, 독립변인인 투표참여 경험, 이타적 활동으로서의 기부 및 봉사 참여 경험, 그리고 자발적 활동으로서 사회집단참여 경험 등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전반적으로 적극적이라 보기는 곤란하다. 특히 이타적 활동 참여경험이 저조하다. 이러한 활동 참여경험에 미치는 개별적 속성의 영향을 보면, 대개 남성, 40-50대, 대표직 수행경험자, 고소득층, 고학력자, 중소도시나 군 지역 거주자 등이 상대적으로 활동참여 경험이 많은 편에 속함을 볼 수 있었다.

둘째,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 공동체의식, 그리고 사회복지의식으로서의 복지책임의식 등의 특징을 보면, 자기효능감과 공동체의식의 평균치는 약하나마 긍정적인 편에 속하는 반면, 복지책임의식은 다소 부정적인 편에 속함을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의식들이 응답자의 개별적 속성의 영향을 받는 양상은 비슷해서, 위 독립변인의 경우처럼 남성, 4-50대, 대표직 수행경험자, 고소득층, 고학력자, 중소도시나 군 지역 거주자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매개변인들인 자기효능감, 공동체의식, 복지책임의식 등은 모두 종속변인인 사회복지협의회 참여의향에 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즉, 자기효능감, 공동체의식, 복지책임의식 등이 높아질수록 사회복지협의회 참여의향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공동체의식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독립변인인 정치참여, 기부참여, 사회집단참여 등의 경험이 종속변인인 사회복지협의회 참여의향에 끼치는 영향은 자기효능감, 공동체의식, 복지책임의식 등의 사회의식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된다. 여기서 부분적으로 매개된다고 보는 이유는 독립변인 정치참여 경험만이 매개변인을 통해서 종속변인 협의회 참여의향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다른 두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을 통한 영향 외에도 직접적으로 종속변인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점 때문이다. 영향이 미치는 형태는 모두 정적이다. 즉, 정치참여, 기부참여, 사회집단참여 등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자기효능감, 공동체의식, 복지책임의식 등을

상승시켜서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 참여의향이 높아짐을 말해준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변인간 관계구조를 요약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사각형은 관측변인이며, 타원형은 잠재변인임.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관측변인은 표기를 생략함. 오차 표기도 생략함.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표 2> 모형 적합도

카이제곱 검증			GFI	AGFI	AIC	RMSEA	RMR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586.368	367	.000	.905	.880	782.4	.040	.058

## 5. 맺는 말

자기효능감이 특정 행동의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며, 문제해결 수행능력을 좌우하며, 긍정적 행동을 지속성을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는 점과,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참여 촉진요소가 되며 소속집단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로서의 인식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의식과 행동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하건대,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의식은 계기가 주어지면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행동으로 전환될 개연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처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행동들의 근원이 될 사회의식들을 사회참여 경험들이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주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갖도록 유도하는 전략 혹은 전술적 차원의 개입을 행할 가치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사회참여 경험의 정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은 이러한 개

입적 노력의 방안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생활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집단 참가율이 높으며,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연령기에 역시 사회집단참여도가 높은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개입활동의 주된 표적은 40-50대에 속하는 상대적 고소득층 집단으로 삼는 편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독립변인들인 투표참여 정도와 사회집단 참여수 사이에도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음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특정한 사회적 영역에서 참여에 적극성을 보이는 사람이 다른 영역에서도 적극성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참여 경험들이 사회복지협의회 참여와 같은 지역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이와 같은 참여활동들 사이의 정적 상관관계에 근거를 둔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자기효능감, 공동체의식, 사회복지의식 등의 사회의식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복지협의회 참여의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끼친다. 전술한 연구결과를 함께 고려하건대, 사회의식들이 사회적 경험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이 지역사회참여에 끼칠 영향을 매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적으로 말해서 어떤 전략 혹은 전술적 개입을 통해서건 이러한 사회의식들을 강화하면 지역사회참여가 활성화될 개연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공동체의식, 복지책임의식 등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을 사회참여 경험과 관련된 몇 가지로 한정하여 다루었지만,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의식들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다. 지역사회참여에 긍정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와 같은 사회의식들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실천 차원에서 개입한다면, 비단 본 연구가 다룬 사회참여 측면만이 아닌 다양한 다른 유효한 영향요인에도 관여할 필요가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때의 초점은 수단이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사회의식의 강화라는 목적에 있기 때문이다.

셋째, 독립변인인 정치참여, 기부참여, 사회집단참여 등의 경험이 종속변인인 사회복지협의회 참여의향에 끼치는 영향은 자기효능감, 공동체의식, 복지책임의식 등의 사회의식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된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앞선 두 가지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 논의에서 예견된 바 있었듯이, 실제 연구결과가 주는 의미는 이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마땅하다.

어쨌든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바는 정치참여, 기부참여, 사회집단참여 등의 경험이 직접 혹은 매개요인을 통해 사회복지협의회 참여의향에 모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개별적 차원의 사회참여의 경험이 확대될수록 사회의식의 변화와 함께 지역사회참여의 한 형태인 사회복지협의회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행위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형태나 맥락은 다르더라도 이들이 '참여'하는 행위란 점에서 공통성을 지니기 때문이라 볼 수 있겠다. 결국,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개별적 차원에서의 사회참여 경험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 등을 자극하는 일종의 인식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참여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게 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이상의 몇 가지 발견사실들을 통해서 주민의 지방 사회복지협의회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이미 개별적으로 참여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이 사회복지협의회 활동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회복지협의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의 표적은 개별 주민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기존조직들로 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아울러, 참여의향이 상대적으로 약한 집단을 겨냥하기 보다는 강한 집단의 참여동기를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참여 활성화를 꾀하는 편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가 갖는 이론적 함의는 지역주민의 지역사회참여 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 사이의 관계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해준다는 점이다.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회현상들 사이에 1대 1의 단선적 관계를 상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다양한 현상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다중적 인과연쇄 구조와 메커니즘을 설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한편, 이런 연구결과가 주는 실천적 함의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어떤 요소에 전략적 혹은 전술적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점이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 및 의식들이 이들의 지방 사회복지협의회 참여의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 분야의 미래 전망을 밝게 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주민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하는 시각에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직접 관여하거나 사회복지 이슈에 관심을 갖고 상이한 입장을 지닌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조직되는 2차적 혹은 3차적 성격의 조직이다. 그래서 사회복지복지와 관련된 지역사회 내 민간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나 시각들을 조정하면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을 대표하는 파트너로서 기능을 하는 조직인 관계로, 일부 서비스조직의 대표들과 유력인사들로만 구성되는 것보다는 주민대중들을 포함하는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지는 편이 바람직함은 말할 것도 없다.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법인격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됨에 따라 근자에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나 정비가 비교적 활발해진 측면은 있으나, 아직 전국 시·군·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만이 조직을 완료한 수준이며, 그 활동내용은 사회복지협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바가 적지 않겠지만, 본 연구는 그 가운데 주민참여를 통한 접근의 필요성에 착안하여 착수되었던 바, 다양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사회의식을 고양시킬 방법들을 개발한다면 주민대중의 지방 사회복지협의회 참여가 비판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협의회 참여의향에는 개인적 경험이나 의식이 다양한 형태와 수준으로 영향을 끼친다. 본 연구의 결과 일부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상치되는 내용도 없지 않았다, 연구방법상의 이유도 있었겠지만 표본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 전략은 해당 지역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2003년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 대표가 실질적인 대표성을 확보하면서 주어진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도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주민참여형 조직으로서 민간부문을 명실상부하게 대표할 만한 상황에 이른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간인 위원의 일부는 사회복지협의회 대표로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전환의 시기를 사회복지협의회가 기관이나 단체 협의회가 아닌 '지역'사회복지협의회로 자리잡아가도록 유도하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민대중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회원의 참여에 역점을 두어 시구정촌(市區町村) 사회복지협의회 중에 주민회원을 둔 경우가 2003년에 전체의 89%에 달했던 일본의 예는 이 점에서 보다 깊은 별도의 분석을 해볼 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몇몇 방법론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의 방향모색과 전략 혹은 전술 구축에 시사점이 될 만한 몇 가지 새로운 실증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본다.